

※ 아산재단은 어려운 이웃의 실제생활이 향상되도록 '취약계층자립'과 '중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 사회복지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독거노인의 정서 지원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의 미담(美談) 3건을 소개합니다.



홍정한 씨(뒷줄 중앙)가 발달장애 이해교육을 마친 뒤 서울 이수초등학교 학생들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

글 하트하트재단 (대표 신인숙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부문)

조용하던 교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아름다운 플루트 연주에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실에서 연주를 들려주는 주인공은 백석예술대학 클래식음악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하트 해피스쿨’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정한(27) 씨입니다.

정한 씨가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나이였을 때, 새 학기마다 새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가 발달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정한 씨는 다른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만큼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를 찾아가서 연주를 들려주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 플루트 연주를 잘 하게 됐는지, 하루에 연습은 몇 시간씩 하는지 등등 어떤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한 씨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기쁘고 뿌듯합니다.



하트하트재단은 발달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한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자로 활동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흥정한 씨가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특별한능력 지닌 발달장애인

정한 씨는 “연주를 듣고 ‘선생님 최고예요’라고 말하며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학생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발달장애 이해교육은 정한 씨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도 몰라보게 바뀌어 놓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뒤 학생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해 거리감을 두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달장애인은 말투가 조금 어눌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와 같이 꿈과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주변의 장애인들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다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인식개선 강사의 연주를 듣고 팬이 된 학생들은 팬레터를 써서 찾아오기도 하고, 사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트하트재단은 2012년부터 발달장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인식개선 강사로 참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발달장애 이해교육의 1차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학교의 인식을 바꿔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한 ‘발달장애 당사자가 함께하는 장애 이해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소장 김동일 교수)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당사자가 함께하는 ‘발달장애이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해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직접 와서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과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에게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 강사님께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애니메이션과 강의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런 교육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해온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산재단의 지원이 계속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강사를 양성한 후 장애 인식개선 교육자로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벗친구가 생겨서 이전 외롭지 않다”

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대표 최경규 · 노노케어 부문)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노노(老老)케어’ 자원봉사자 발대식.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15~2016년에 이어 2016~2017년에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금님 쌀’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 정문화(72) 씨는 그중에서도 대월면에 삽니다.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그랑노인자원봉사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봉사자가 되기 위해 복지관에 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옆동네에 거주하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홀로 가게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그 마을을 지나면서 가끔 인사나 안부를 묻는 사이였지만 그분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였으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좋은 인연을 맺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자 진심이 통했는지 그분은 마음을 열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봉사자와 수혜자로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는 외로움이 정말 컸습니다. 구멍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홀로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쉽게 외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잣말이 많았고, 생각에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물건도 사고, 세상사는 이야기를 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친분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지만 수혜자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전증이 있어서 직장을 갖기 힘들었고, 신체적·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머니를 도울 형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봉사자가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응대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동네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등을 이야기하며 말벗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다고 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남겨지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생기는데 이런 불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산재단의 ‘노노(老老)케어’ 사업은 노년층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노케어’ 같은 사업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경우 봉사자들이 직접 수혜자를 발굴하면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순조롭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2년차에는 봉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독거노인 등 실질적인 위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2017년 30명의 봉사자가 독거노인 60명의 말벗이 돼주고 안부를 챙기는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겨울의 삶에서 봄을 꿈꾸다”

글 **논산지역자활센터**
(대표 김형광 · 취약계층자립 부문)



자활기업으로 인증돼 창업한 회오리세차장은 관공서 등과의 차량 세차계약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은 겨울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잘 나가던 멋진 시절은 이제 과거에 불과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50여 곳이 있는데, 바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논산지역자활센터의 회오리세차는 물 없이 하는 손세차 사업입니다. 약 0.1리터의 적은 물로 차량 한 대를 세차하는, 특허를 받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물 없이 세차하다 보니 노동력에 의존하여 힘든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영리기업으로 창업시키기 위한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한정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을까, 노동집약적 방식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창업 뒤 수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려 할 때 아산재단의 공모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1차, 2차 서류전형에 통과했습니다. 3차 심사는 5분 프레젠테이션 발표였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을 호소했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3차 발표까지 무사히 넘기고 최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계획에 넣지 못했던 철거 문제로 지원금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세차장의 폐기물 인허가 문제도 생겼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설계도면

과 건축물대장 등록 등 처리해야 할 일투성이였습니다.

철거 비용은 자체 철거를 하고 폐기물만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문제로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확인해 나갔습니다. 세차장 인접 가구에 양해를 구하고, 방음벽도 설치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2년 계약만 하겠다는 토지주에게 5년 계약을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2015년 12월 1일 소중한 자활기업 창업식을 가졌습니다. 논산시로부터 자활기업 승인을 받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은 창업 이후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얼마 전부터는 일요일 근무도 시작했습니다. 자활기업 창업 이후 급여는 30% 정도 올랐고, 퇴직금도 적립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세차가 많은 날은 자활근로 사업단 치킨집에 와서 치킨과 맥주도 간간히 드시고 갑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다른 사업단을 이용해주는 배려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회오리세차가 자활기업으로서 수익을 내고, 퇴직금을 적립하며, 급여가 인상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아산재단의 지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우린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오리세차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해 성공했고, 이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립니다. ☺

※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논산지역자활센터는 건축과 도배, 청소 관련 자활기업도 창업했습니다.